

‘희망’ 2015 신년 인터뷰

② 박근혜 정부 유일 호남출신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장 개혁 ‘일자리 격차 해소’ 초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재 유일한 호남 출신 장관이다. 올해로 노동부 공직생활 35년째인 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적 현장을 지켜왔다. 현대중공업 노조투쟁 태동기인 지난 1986~1987년 그는 울산지방노동청에서 사무관으로 있었다.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던 김대중 정부 초기에 그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2003~2004년엔 노사정위 운영국장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2005년)의 기초를 닦았다. 2007년엔 고용정책관으로 사회적기업을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이 장관은 이제 수장으로서 두 번째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다. 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장관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들었다.

대담=박지경 서울취재본부 정치부 차장

- 장관 취임 반년이 다 돼간다. 보람은.

▲고용률이 지난 10여년간 63~64%의 정체상태를 벗어나 65%를 돌파한 것이다. 또 노사정위를 정상화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실행 일정에 합의를 이뤄낸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올해 최대 과제로 중 하나로 꼽았다. 그 배경은.

▲세계적으로 고령화·서비스경제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 대해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이에 반해, 우리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고용노동 법·제도·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우리만 안고 있는 현상으로, ‘IMF 사태’를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의 흐름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기간제 규율 이후에는 규제를 피해 파견으로, 또 파견에서 하도급화 하는 등 간접고용의 나쁜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 일자리 격차도 너무나 커서 ‘대기업·정규직·유노조’와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간 임금격차가 최고 3배 가까이 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각하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60세 정년’이라는 새로운 룰이 시행되는 것도 개혁의 배경이 된다.

- 개혁의 방향은.

▲우선 간접고용화하는 흐름을 직접고용 쪽으로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또 일자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 때문이다. 이 중 인건비 절감 차원의 비정규직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실한 근로자들이 60세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시간·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도 관련 질서의 조정·보완을 해야 한다.

- 지난달 23일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했다. 그 의미는.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성·자세·절실성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이다. 우선, 현재 근로자·구직자 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가 필요하다는 데 노사가 공감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또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노사정이 책임과 부담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도 중



프로필 ▲1957년 함평 출생 ▲광주고, 중앙대 행정학과, 중앙대 행정학 박사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노동부 노사조정과장, 고용정책과장, 노사정위 운영국장 ▲광주지방노동청장, 근로기준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고용노동사비서관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목소리가 큰데.

▲순탄하지 않겠지만 약속했으니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사(社)는 근로자를 비용이 아닌 소중한 인적자산으로 인식하고, 근로자도 회사의 성장이 결국 근로자들의 더 나은 일자리 보장으로 귀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등 모두를 아우르는 다층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한편,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시급성 절실함이 필요하다.

-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대화할 생각은 없는가.

▲민주노총의 전임 지도부와 비공식적으로 만나왔다. 또 새로운 위원장이 당선돼 스태프를 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직 구성이 완료되면 다양한 형태로 대화할 것이다.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 때 노조 측의 요구로 상설기구화 됐다.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말하는 게 바람직하다.

-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하는 ‘장그래 죽이기 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해 당사자 입장에서 마련했다. 기간을 4년으로 늘려 고용의 안정성을 확대한 동시에 ‘조끼계 계약’ 갱신 횟수를 3회로 제한해 비용을 아끼는 차원의 비정규직 양산을 막았다. 그래서 ‘장그래’ 양산이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못한다.

- 임금체계가 개편 방향은.

▲연공성을 완화하고 능력·성과·직무에 맞게 합리적으로 임금이 주어지도록 하려 한다. 또 정·비정규직, 대·중소기업, 고·대졸, 남·여 간 임금 차별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전체 임금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 산업밸리 육성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과 광주형 사회적 협약 임금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주의 노사관계는 수치상으로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나 국민적 인식은 그렇지 않다. 대구 노사정이 서울에 와서 평화선언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독일에서는 폭스바겐이 어려웠을 때 지역 주민들이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주며 회사 발전을 이끌었다. 광주에 맞는 방안을 찾아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광주시의 적극적 행보는 긍정적이며 우리 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역할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사고가 잦은 여수산업단지 안전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관심이 많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정부는 노후 화학설비에 대한 범정부적인 사고에 방재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최근의 화학사고는 대부분 원청업체보다는 협력업체에서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작업,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선 선비들의 마음속 풍경화 ‘양치는 삶’



(98) 양



이인문 작 ‘양을 치며 단소를 불다’

해가 바뀌면, 우리들은 올해가 어떤 동물의 띠인지, 그 동물이 상징하는 좋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새해다짐을 하는 것 같다. 첨단 과학의 발달로 신비로운 우주도 한결 가까워진 오늘날이지만, 다시 들여다보아도 고대인들의 천문학 연구의 소산인 십간과 십이지에는 고대인들의 우주관과 생사관, 종교적 열망이 담겨있어 경이롭다. 심지어 사상은 ‘십이지 미술’에도 남아있다.

올해는 을미년(乙未年) 양의 해.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가족으로 기르지 않아 친숙하지 않아서인지 동물 가운데 양은 그다지 즐겨 그려진 소재가 아니었다. 많지 않은 양 그림 중 인물과 함께 그려진 조선시대의 양 그림이 있다.

조선 후기 회화사에서 김홍도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화원화가 이인문(1745~1821)의 ‘양을 치며 단소를 불다(牧羊吹簫)’는 양과 함께 그려낸 신선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림 속 양치기소년은 중국 진나라 사람인 황초평으로 어떤 신선이 금화산 석실로 데려가 신선도를 닮

게 했다. 40년이 지난 후 그의 형 황초기가 아우를 찾았더니 집을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한다.

항상 소년의 모습으로 때 묻지 않은 동심을 보여주는 황소평의 예피소드는 탈속한 생활을 꾸꾸던 많은 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양과 황초평이 등장하는 김홍도의 그림 ‘금화편양(金華鞭羊)’을 비롯해 여러 화가들이 이를 그림의 소재로 삼기도 했다.

그 때도 그랬나보다. 시절이 어지럽고 수상하니 속세를 떠나 양을 치며 신선처럼 살아가는 한가로운 삶을 소망했었나 보다. 황초평의 고사를 담은 ‘신선도’는 입신양명 이후 낙향하여 은일한 삶을 즐기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렸던 마음 안의 풍경화였던 듯 싶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정윤희 문건’ 인적쇄신 입장 밝힐까

박근혜 대통령 12일 춘추관서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올 국정운영 방향 등을 밝힌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첫해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도약시킬지에 대한 대책과 국정운영 방안,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을 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두 번 모두 신년회전 형식을 빌렸다.

회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진과 청와대 수석 이상 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먼저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방향과 추진 전략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TV로 생중계되며 1시간30분가량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고강도 실천과 함께 노동시장·공무원연금·금융부분·

공공기관 등 4대 분야에서의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한 입장을 비롯한 대북·통일 등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말 정공을 강타한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동에 따른 내각과 청와대에 걸친 인적쇄신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의 핵심인 4대 분야 구조개혁 등의 대국민이해와 소통 등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언론사 편집국장 및 정치부장 등과 대화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수석은 정부 업무보고는 1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